

일본의 ODA 동향

(JBIC 엔차관 부문의 JICA로의 통합)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일본 정부산하 금융기관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엔차관 등 국제협력은행(JBIC)의 ODA 기능을 국제협력기구(JICA)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바,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답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

- 동 구체 개혁방안에 대해 현재 총리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 및 자민당에서 8개 기관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 및 업무특성에 따라 3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

I. 일본 정부의 정부계 금융기관 개혁 추진

-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구조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우정 민영화법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산하 금융기관 개혁이 고이즈미 개혁의 차기 주요과제로 부상함.
 - 동 개혁은 국제협력은행(JBIC) 및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국민생활금융공고(公庫),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등 8개 정부계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예의 부

II. JBIC의 JICA로의 통합

- 상기와 같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1개 기관안 및 3개 기관안은 국제협력은행(JBIC)의 존속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시
 - 3개 기관안의 경우 국제협력은행 존속(대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업무를 일부 축소시키나 ODA 부문은 유지)
 - 1개 기관안의 경우 국제협력은행의 투자금융 등 업무는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금융기관에 업무를 이관하고, ODA 업무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아닌 JICA 등 일반 정부기관으로 이전

- 상기와 관련, 11월 22일자 닛케이 신문은 총리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정부계 금융기관 개혁의 기본지침안을 마련한 바, JBIC의 엔차관 부문을 JICA로 통합하여 외무성 관리하 또는 총리 직할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Ⅲ. 향후 일정 및 전망

- 일본 정부는 이달말까지 정부계금융기관 통폐합 방안 기본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기초하여 2008년까지 실제 민영화 및 통폐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

- 동 구체 방안과 관련하여 고이즈미 총리가 수차례 1기관 통합안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도 1기관 통합방안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1개 기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국제협력은행의 ODA 부문은 JICA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

- 단, 1개 기관 통합안에 대해 재무성, 경산성 등 일본 정부 각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방향은 이달말 정부 기본방침이 결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자료:주일본 대사관]